

남편의 외도와 여성의 관계성

하 재 성*

국문초록

성의 개방과 더불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는 배우자들이 많은 가운데 다수의 여성들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가정과 부부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을 감행한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왜 이런 힘든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일관되게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남편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지키며, 자신과의 관계에 속한 남편을 오히려 돌보려 하는 여성의 관계성(re relationality)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의 관계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이탈하는 다른 선택을 꺼리게 한다. 따라서 여성의 관계성이란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을 돌보며 가족 존재의 필연적 기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성 속에 갇힌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외려 그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려는 관계성 때문에 스스로 큰 고통을 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성의 관계성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외도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참고 섬기도록 요구하는 전통적 성 역할(gender-role)이다. 아무런 의문도 없이 주어진 사회문화적 요구가 모든 상황에서 아내에게 책임을 지우고 맹목적인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자원을 가진 상담자는 남편의 외도로 희생자의 상처와 도덕적인 우월성을 동시에 가진 여성들로 하여금, 빠른 화해나 값싼 용서의 요령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자율성 안에서 자기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self)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관계성, 목회 신학, 남편의 외도, 여성의 목소리, 여성 혐오

• 논문 투고일: 2010년 0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3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3일

* 고려신학대학원

I. 여는 글

“결혼과 관계없이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2005년 통계청의 설문에 대하여 20-44세의 기혼여성들 가운데, 28.2%는 그럴 수 있다고 대체로 찬성하였다. 하지만 다른 40%는 거기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8%는 매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통계가 남편 혹은 아내 가운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사여서 그 구체적인 의도와 결과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외도가 부부 관계에, 특히 다수의 여성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임은 분명하다.

개방적인 결혼(open marriage)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과격한 개방적 선포로 눈길을 모았던 1970년대의 인류학자 George & Nena O'Neil 은 얼마지 않아서 그들의 이론을 심각하게 수정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수록 부부들의 성에 관한 배타적 욕구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¹⁾ 시대 정신에 편승하여 성에 대한 개방적인 자유가 마치 부부 관계의 이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개방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개입됨으로써 개방적 외도는 그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도의 당사자는 남편과 아내 모두일 수 있으며, 2003년 영국의 통계를 보면, 남편의 외도가 55%, 아내의 외도가 45%로 나타나고 있다.²⁾ 물론 한국의 경우와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혼의 90%는 바로 부부 외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면 외도는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가정과 부부의 관계에 특별히 심각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경험적으로 볼 때, 외도의 당사자가 남편인 경우가 훨씬 많이 드러나고 있고, 표면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을 볼

1) George & Nena O'Neil, *The Marriage Premise* (New York: M. Evans & Co., 1977).

2) John Elliott and Rachel Dobson, "Straying Wives Match Men as Marital Cheats," *The Times*, October 26, 2003.

수 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Bill Clinton에 대한 그의 아내 Hilary Clinton의 태도는 오늘날 여성들이 남편의 부정을 다루어가는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다. 힐러리는 남편에 대한 큰 분노와 실망을 경험하였지만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외도의 원인이 사례마다 단순하게 일치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의 형태가 문화나 사회,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의 경우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자신은 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가정과 부부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을 감행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여성들은 왜 이런 힘든 고통을 일관되게 선택하는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남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에 의존하며, 관계에 속한 남편을 오히려 돌보려 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관계성 (relationality)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목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관계성이란 특별히 “여성들이... 그들의 관계의 환경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평가하려는 성향”과 관련하여, “여성의 삶에서...관계를 위한 협력, 돌봄, 격려에 헌신하는 능력과 경향”을 가리킨다.³⁾ 여성학자들에 의해 이런 관계성이 더 이상의 약점이나 미숙함이 아니라 강점인 것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 일찍이 버클리 대학의 Nancy Chodorow는 “어떤 사회에서도 여성적 성격은 남성적 성격보다 더욱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와 연결성 가운데서 자신을 정의한다”고 주장하였다.⁴⁾

하지만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여성의 인내와 자기 희생적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관계성은 여전히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미 속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다른 선택을 꺼리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성의 관계성이란 한

3)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MN.: Augsburg, 2001), 233.

4) Nancy Chodorow,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Women, Culture, Society*, eds., M. Z. Rosaldo & L. Lamphe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43-44.

편으로 여성이 가족을 돌보며 가족 생명의 필연적 기초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스스로 2중, 3중의 고통을 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로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은 그러한 여성의 관계성을 당연시하고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족 관계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족을 돌보며 고통당하는 여성에게 정신적 보상을 해 주기는커녕, 심지어 외도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참고 섬기는 것을 여성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여기는 사회 문화적 성 역할(gender-role)이 아무런 의문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전통적인 한국 사회를 비롯한 다수의 문화에서 흔히 일어났던 아내 책임의 맹목적인 역동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을 위해 봉사하고,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려는 여성들의 경험을 목회 신학에서 말하는 관계성의 시각을 통해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목회 상담자의 역할은 피해자 내지 희생자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우월의 위치를 가진 여성들로 하여금, 빠른 화해나 값싼 용서의 요령이 아닌, 자기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self)⁵⁾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여성의 관계성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비평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펴는 글

1. 아내의 이중적 의무

부정을 저지르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는 과연 성 관계를 허용할 것인가? 기

5) 여기에서 언어(language)란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현실을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것으로서의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적 언어가 마치 인류 전체의 언어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음을 인지하고, 여성은 마치 제2위의 인류 집단인 것처럼 취급하는 언어 습관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의 삶을 언어로 다시 창조함으로써 스스로 “힘과 지위 (power and position)”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Neuger, *Counseling Women*, 73-74.

독교 심리학자인 James Dobson의 구호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해야 할 사랑 (Love Must Be Tough)⁶⁾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는 당연히 외도하는 남편과의 성 관계를 일시적으로나마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록 아내가 외도하는 남편과 성관계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최소한 “내과 의사에게 질병감염 예방을 위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⁷⁾이런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신실한 배우자인 아내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남편에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상담자들의 경험이나 이론에 따르면, “아내가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줄 때 [많은 남편들은] 결국 다시 돌아오며, 그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⁸⁾ 그러므로 아내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고, 자칫 그릇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나마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내는 외도하는 남편보다는 가족을 위해 더 건강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두 사람이 다시 가정을 재건해야 할 경우 행여 아내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일 아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통제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현해 버린다면, 혹은 외도의 동기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보복적인 외도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남편이 저지른 잘못만큼 되갚아 주려고 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외도 문제에 관한 여러 상담 안내서들 역시 아내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 이전에 아내들이 지켜야 할 요령들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6) James Dobson, *Love Must Be Tough: New Hope for Families in Crisis* (Dallas: Word Publishing, 1996).

7) Henry A. Virkler, *Broken Promises: Healing and Preventing Affairs in Christian Marriages*, 김의식 역, 『외도상담』 (서울: 두란노, 1997), 213.

8) Virkler, *Broken Promises*, 211.

복잡하고 지속적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 고난을 감내해 가는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고통스런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결국 외도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내들은 그저 가정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회복’ 내지 ‘공급’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여성들은 한 가족의 유지를 위해 참고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목소리도 없고 영혼도 없는 구성원에 불과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의무에 갇힌 여성의 문제는 여성 개인과 사회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미국인 여성은 혹시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여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 여자 친구에게 침실을 양보하기까지 하였다. 그 이유는 그녀가 읽은 신앙 서적에서 “범죄한 남편에게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남편은 그 여자에게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었다. 이 같은 아내의 두려움과 종속을 매개로 그 남편은 두 여성들에 대한 자신의 강박적인 소유욕을 지속시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복종을 맹목적으로 교리화 하면서 여성의 더 많은 희생을 요청하는 것이 단순히 세속적인 사회 문화의 결과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수의 남편들은 자신은 외도를 하면서도 아내에게는 진실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엄마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혹시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외도와 폭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 자신은 결혼의 책임과 헌신의 약속에서 물러서면서도 정작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두려움을 방편으로 압박함으로써 아내의 인격적인 직위를 가정과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일찍이 Harvard 대학교의 윤리교육학자 Carol Gilligan은 여성의 도덕 의

9) Dobson, *Love Must Be Tough*, 5.

식에 대한 자신의 초기 연구에서, 규칙의 객관성을 중시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은 윤리적 결정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의미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인간 관계가 가진 의미가 여성들에게는 모든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실제로 친밀감을 두려워하지만, “소녀들이나 성인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정체성은 엄마로부터의 분리 내지 개인화(individuation)의 진행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분리(separation)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¹⁰⁾

물론 관계성 자체가 여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며, 남자들 역시 관계 의존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정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안양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유괴 살인범도 그 여자 아이들에게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픈데 와서 좀 도와 줄 수 있겠어?”라고 접근하여 그들의 생명을 약탈하였다.¹¹⁾ 필자가 상담한 어느 초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그 아이를 유인하여 강간했던 범인 역시 “나 길을 잘 모르는데, 길 좀 가르쳐 줄래?”라고 접근함으로써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본성과, 타인의 필요를 돌보아 주고자 하는 여성의 친절을 악용하고 약탈함으로써 남성 자신의 이기적이거나 악한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외도하는 남편이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내를 가정 의존적인 존재 내지 가정 수호적인 존재로 고착시키는 것도 가부장적 사회와 여성의 이와 같은 관계 중심적 본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관계성 (relationality)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남편이 외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런 남편을 자신들이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 하겠다는 의무감을 가진다.

10)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8.

11) 「연합신문」, 2008.3.18.

겉으로 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류의 의무감들이 여성학자들에게는 그다지 낯선 개념이 아니다. 미국 Texas의 Christian University의 목회 상담학자 Christie Neuger는 여성들의 이런 관계 중심적 성향을 가리켜 “강박적이고 강제적인 관계성”(compulsive and compulsory relationality)이라 부르고 있다.¹²⁾ 여성들이 흔히 걸려드는 이런 관계성이야말로 겉으로 보기에 무난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회의 분위기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여성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의 타고난 본성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로 강요된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성에 붙들린 여성들은 이중적인 책임감을 지고 산다. 첫째는 부정을 행하는 남편으로 인해 배우자로서 겪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남편의 부정을 처음으로 접하는 아내의 내면은 트로마(trauma)를 겪는 정신적 과정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 충격(shock)과 부인(denial)의 단계를 지나고, 남편의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질투와 미움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의해, 남편의 부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아내가 스스로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언급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아내들의 귀에 들려진다. 기껏 너그러운 말이 “네가 참고 남편에게 잘해라”는 조언이다. 물론 외도의 원인들 가운데는 때로 아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남편 외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신에 대한 미움은 곧 우울증의 전조이며, 특별히 여성성을 우울증과 동일하게 만드는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이다. 심리 상담자인 Miriam Greenspan에 따르면 진정으로 여성성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울증에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첫째, 여성성을 가지고 우울증을 앓으며 살든

12) Christie Neuger, “Women and Relationality,” in *Feminist & Womanist Pastoral Theology*, eds. Bonnie Miller-McLemore & Britta Gill-Auster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115.

지, 아니면 둘째, 우울증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여성성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여성을 미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Greenspan은 사회적 권력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남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여자들을 다스리는 권력, 즉 여성들이 인격체로 정의되고, 다루어지고, 학대를 받는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이다.¹³⁾

남편이 외도하는 것은 언제나 아내가 잘못 처신하였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라든지, 남편이 외도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문화적 당위의 규범은 여성의 자율적 결정을 박탈하고, 여성의 너그러움을 본질화 시키면서도 약탈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결국 잘못된 남편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나 뒷수습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돌아옴으로써, 아내는 하소연할 곳 없는 외로움과 고독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심각한 우울증일 수도 있고, 혹은 여성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살일 수도 있다. “자신의 자아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여성들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은 곧 존재감의 상실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¹⁴⁾

물론 자살이 외도의 문제의 해결일 수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외도 상담을 위한 어느 핸드북에서는 “자살을 심각하게 시도하지 말라”는 실용적인 안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⁵⁾ 남편의 배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도 피해야 하고, 그것을 쉽게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가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도 상담의 전문가들이 주는 요령서가 주는 유익이 큰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13) Miriam Greenspan,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3), 193-94.

14) 하재성, “가사 노동의 위기와 여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 13권 (2009): 153.

15) Virkler, *Broken Promises*, 206.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안내서들은 외도 상담이 가야 할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어서 피해자인 아내의 고통스런 선택이나 자율성을 그다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성경에서도 간음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당사자에게, 특히 피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통계적으로 배우자의 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계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고,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를 겪어가는 여성들에게는 우선 그들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느 것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상담자는 이런 고통에 처한 사람을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자의 공감과 진솔과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는 귀와 그가 준비될 때까지 상담의 과정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다.¹⁶⁾

그와 더불어 피해자이면서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어야 하고,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한 인격체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간 소외의 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포함된 “인간 내면적, 대인 관계적, 혹은 체계적 요소들은 어떤 목회적 접근을 위해서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¹⁷⁾ 그러므로 이런 아내들에게 필요한 요령은 단순히 상처를 극소화 하면서 남편을 신속히 용서하거나 다시 화해함으로써 제자리로 빠르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담자는 그런 외상적 경험의 와중에 입체적으로 고통을 겪어가는

16) Virkler, *Broken Promises*, 204.

17) Rodney Hunter,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0), 581.

피해자이자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한 여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의 자율성과 권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아내가 자신의 신앙과 가치에 맞게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해 맞추어 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 신학자 Susan Dunlap의 언급과 같이, “치료의 과정”은 단순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됨(selfhood)을 선언하고, 자기를 알고 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3. 여성의 의존성(dependency)

외도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관계 중심적 동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성 학자들의 관점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한다. 남성들이 새로운 목표의 성취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달리, 여성의 능력과 동력은 자기 삶이 속한 핵심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계 중심적 성향들이 이혼의 정당한 신학적 사유가 되는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들 곁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이다.

여성 목회 신학자들은 전통적 발달 심리학이 한 개인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양육하는 엄마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에서부터, 일정한 갈등의 과정을 거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라 소개하고 있음에 주의한다. 의존성에 대한 이러한 틀에 박힌 공식이야말로 인간 관계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성장 환경과 존재 자체를 병적인(pathological) 것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독립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시켜 가면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18) Susan Dunlap, *Counseling Depressed Wome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60.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같은 발달 이론에서 그들이 가진 “의존적, 상호의존적, 관계적 연결성에 머무르는 경향으로 인해 참된 성숙을 이루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졌으므로, 이 같은 대항 패러다임들이 여성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여성 중심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을 “타인” 취급하고 어떤 면에서 [자신들을] 비정상이라고 진단하는, 남성들의 경험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¹⁹⁾

외도하는 남편을 둔 여성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 역시 목회 신학자들이 회피하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일반화된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의 경험은 각각의 특별하고 심오한 의미들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각 사람의 이야기는 그 독특성과 그것이 가진 특별한 상황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치료의 목표가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남성 위주의 편의주의적 해결이 아니라, 여성의 자율과 선택 및 자신의 신앙적 통합성(integrity)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사례들은 그 특별한 이야기와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일관된 이론이나 요령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비통상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환영해 들이는 것이 특별한 사례와 고통을 가진 여성들을 존중하고 치료하는 바른 길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관계성이란 한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축하하기 위해 그것을 찾는 것”을 말한다.²¹⁾

필자가 상담한 어떤 여성은 외도하는 남편의 허락이 없이 자신의 퇴직금으로 자가용을 구입했고, 남편의 허락 없이 옛날 여자 친구를 찾아 방문하였다. 물론 외도하는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강박적인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자율적 선택은 자신의 고유성과 특별함을 발견해 가는 중요한 치유적 방편이라 할 수 있다.

19) Neuger, “Women and Relationality,” 117.

20) Neuger, “Women and Relationality,” 121.

21) Neuger, “Women and Relationality,” 129.

내담자 스스로에게는 매우 유익한 치유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가족과 아내에게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비록 그 여성에게 혹시 남편이 자신을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건강한 관계성을 가진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James Dobson이 추천하는 “단호한 사랑”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아내의 자기 언어가 상담이나 가족 관계를 통해 자기 언어로 표현된 이후의 일이다. Timothy Lane이 언급한 “다시 상대가 준 상처를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뒷담화를 하지 않고, 상대를 괴롭히지 않는 것도²²⁾ 결국은 충분한 자기 표현을 통해 자율성을 회복한 이후에 스스로 신앙과 양심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 여성의 관계적 환경과 관계성

말 그대로 외도란 “한 배우자가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외도의 배후에는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한 성적 행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의 관계와 상황에 있어서 더 깊은, 말하자면 어려운 일들이 무의식적인 세트에 내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증상” 행위인 것이다.²³⁾ 거기에는 배우자 서로가 가진 신경증적 필요(neurotic needs) 뿐만 아니라, 발달과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심리 역동적인 관점에서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22) Timothy S. Lane, “Pursuing and Granting Forgivenes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3, no. 2 (2005): 52-59,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상담의 용서의 문제,”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0권 (2008, 5): 160에서 재인용.

23) Hunter, *DPCC*, 581.

따라서 외도 상담에 대한 다수의 저술들은 외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심리적 환경과 관계적 환경의 복잡성을 서술하면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다시 용서와 화해로 되돌이킬 수 있는지의 요령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죄와 벌,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신학적 관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문제를 반복하여 일으키게 하고, 특정 성에 속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외도의 행위를 장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묵인 내지 허용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Miller-McLemore 교수는 목회 신학 이론에 관한 글에서 “가부장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과 “여성들[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침묵들을 깨뜨릴 것”을 요청한다.²⁴⁾ 아내인 여성들을 무력하게 하고 그들의 존재감을 없애는 문화와 습관에 대하여 단순한 적응에 익숙할 것이 아니라 침묵을 깨뜨리고 자신의 존재와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Miller-McLemore는 전통적으로 목회 신학에서 중시되어 오던 네 가지의 덕목 즉 치유(healing), 유지(sustaining), 인도(guiding), 화해(reconciling)의 구호를 저항(resisting), 힘을 북돋움(empowering), 양육(nurturing), 자유롭게 함(liberty)의 구호로 전환시킨다.²⁵⁾

필자가 상담했던 내담자들 가운데 남편의 외도로 고통 당하는 어떤 여성은 살림을 착실하게 살아와서 빛에서 벗어났으나, 시어머니로부터 외려 모든 것이 머느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구박을 받았다. 친정 어머니로부터 그나마 약간의 동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녀의 부모의 권면에 따르면 남편의 바람기는 아내로서 더 참고 남편을 잘 섬겨야 할 이유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남편의 외도를 둘러싼 주변에 있는 다수 여성들의 전통적인 태도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규율들은 여성들의 삶에 학습되고, 그것이 대를 이어 문화의 무의식 속에 되살아 오른다. 남성의 외도를 통해서 일

24) Bonnie Miller-McLemor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in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88.

25) Miller-McLemore, *Pastoral Theology*, 80.

어나는 개인들의 반응과 다양한 관계의 역동이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관계성에서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친정 어머니조차도 딸의 고통의 소리보다 시대의 무의식에 익숙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역할은 앞서 Chodorow가 여성으로 하여금 분리(separation)를 두려워하게 하고, 남성으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말한 내용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Dunlap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참 자기, 진정한 자기, 감추어 졌으나 솟아오르는 자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기의 자기 언어 (the language of self)야 말로 여성들을 치유하고 힘을 북돋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⁶⁾ 부부의 화해를 위한 다양한 처세술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여성을 “보이지 않고, 부차적이고, 혹은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문화에서 그런 처세술들은 자칫 신실한 배우자에게 머리 아픈 요령과 무의미한 의무 덩어리만 키워줄 수도 있다.²⁷⁾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동시에 관계 속에서 자신의 구별된 자아를 요청하는 여성의 존재론적 필요에 대해 목회 상담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Dunlap의 주장과 같이 전통적 심리학에서처럼 여성의 관계성 자체를 성장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하지 못한 지적이다. 그 관계가 비록 병든 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한 아내의 정신적 과정은 외도 부부의 관계 회복이란 목적 이상으로 자신과 다수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인 무의식 가운데 이어받은 관계성, 그래서 오히려 강요나 약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계성은 여성을 우울증과 같은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관계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대인관계들 속

26) Dunlap, *Counseling Depressed Women*, 60.

27) Dunlap, *Counseling Depressed Women*, 60.

에 내재 되어 있는 가부장적 형태가 문제인 것이다.”²⁸⁾ 여성에게 있어서 관계성은 오히려 여성을 견고하게 하고 우울증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며 건강하게 하는 여성 존재의 원동력이 된다. 위에 예시된 여성들의 경우, 결국 관계성과 연결성을 거부하고 떠남으로써 더 큰 우울이 다치게 될 것을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있기에, 이들 아내들은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바로 잡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기가 어렵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과 자신, 그리고 남편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Dobson이 주장한 단호한 사랑의 개념이 건강한 아내를 세우는 방법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위와 같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정당한 선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편향된 경제 구조와 남편 의존적인 자녀 양육 비용, 그리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문화적 관용이 함께 작용하며 여성의 관계성에 독특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관계에 대한 건강한 욕구는 다음 두 가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 받고 있다. 첫째는 자신은 친밀감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믿음 때문이고, 둘째는 [그녀의] 배우자가 친밀성의 차원으로 [내려와 그 여성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⁹⁾ 더 큰 문제는 Greenspan의 지적과 같이, 여성 자신이 그런 친밀감을 느낄 자격이나 가치가 없다고 믿게 하는 문화이다. 다른 생각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여성의 삶에 생기는 갈등을 그저 자기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제한시키고, 자신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홀과 돌봄과 희생만이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미움과 비하, 혹은 “자기 정죄”(self-condemnation)를 사회 문화적, 혹은 신앙적 유산으로 물려받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28) Dunlap, *Counseling Depressed Women*, 67.

29) Dunlap, *Counseling Depressed Women*, 68.

30) Greenspan, *Women and Therapy*, 10.

III. 닫는 글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적 개별성(particularities)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가이드로서의 외도 상담 지침서는 자칫 부부 관계 회복의 의무를 여성에게만 부과함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상담에 있어서 각각의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를 회복하고 그것을 상담자 앞에서 표현하며,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내들을 위한 상담의 중요한 임무이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관점을 가진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의 외도로 고통당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강요된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가도록 자율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상담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언어를 찾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한국이라는 가부장적인 특수 문화와 여성이라는 특별한 관계 중심적 존재가 서로 만나 보여줄 수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관계성과 돌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여성들은 남편의 배반적 외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자극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도 조심스러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성의 관계 중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편을 둘러싼 문화와 남성적 관계성의 양식이 남편의 그릇된 행동조차 지지하게 하는 그릇된 문화적 편견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나 문화가 성에 대해 자유로워질수록 가정에서의 성적 배타성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모순적으로 더 커진다. 그런 맥락에서 남성의 외도는 여전히 아내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외도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관대한 한국 사회가 그로 인해 상처와 우울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고통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여성이 가진 중요한 본질의 하나인 관계성 혹은 관계 중심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미성숙이 아닌 성숙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존의 심리학적 건강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죄와 용서와 윤리적 정의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으로, 혹은 자기 파괴적으로,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선택을 감행하는 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에 대해 여성의 주체적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관계성이 의미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용되거나 남성 중심적 문화에 의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여성들이 자기 언어를 회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목회 상담은 한 여성이 자신의 언어를 찾도록 돕는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인 회복과 자각과 치유의 길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경적 목회 신학은 여성들의 자기 표현을 억누르는 무의식적 가부장 문화와 질서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미워하고(misogyny)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문화적 무의식들을 인식하고, 의무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관계적 필연성이 자신을 지키고 건강하게 가족을 돌보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의 현실적 경험에 대한 Julia Kristeva의 지적은 차가울 정도로 정확하다: “우리 [여성]들은 과정상에 있는 주인공들이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서 변덕스러운 일들로 안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항상성(homeostasis) 같은 것 때문에 여전히 그 타인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³¹⁾

31) Julia Kristeva, *In the Beginning Was Love: Psychoanalysis and Faith*, trans. Arthur Goldhamm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9.

【 참고문헌 】

- 김준.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상담의 용서의 문제”. 한국복음주의기독교 상담학회. 『복음과상담』 제10권 (2008).
- 하재성. “가사 노동의 위기와 여성”.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 (2009).
- Virkler, Henry A. *Broken Promises: Healing and Preventing Affairs in Christian Marriages*. 김의식 역. 『외도상담』. 서울: 두란노, 1997.
-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Chodorow, Nancy.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Women, Culture, Society*. eds. M. Z. Rosaldo and L. Lampher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 Dobson, James. *Love Must Be Tough: New Hope for Families in Crisis*. Dallas: Word Publishing, 1996.
- Dunlap, Susan. *Counseling Depressed Wome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Elliott, John and Dobson, Rachel. “Straying Wives Match Men as Marital Cheats.” *The Times*, October 26, 2003.
- Greenspan, Miriam.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3.
- Hunter, Rodney. ed.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0.
- Kristeva, Julia. *In the Beginning Was Love: Psychoanalysis and Faith*, trans. Arthur Goldhamm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Lane, Timothy S. “Pursuing and Granting Forgivenes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3. no. 2 (2005): 52-59,
- Miller-McLemore, Bonnie. “Feminist Theory in Pastoral Theology.” In *Feminist and Womanist Pastoral Theology*, eds. Bonnie Miller-McLemore & Brita Gill-Austern. Nashville, TN.: Abingdon, 1999.
- Neuger, Christie C.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Minneapolis, MN.: Augsburg, 2001.

Neuger, Christie C. "Women and Relationality." In *Feminist & Womanist Pastoral Theology*, eds. Bonnie Miller-McLemore & Britta Gill-Auster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9.

O'Neil, George & Nena. *The Marriage Premise*. New York: M. Evans & Co., 1977.

【 Abstract 】

Relationality of Women: A Pastoral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Wives' Loyalty to the Family Regardless
of Husbands' Infidelity

Jaesung Ha

Korea Theological Seminary

Why do many women in Korea with a problem of husbands' infidelity insist to stay with them regardless of the painful experience of brokenness in relationship? Pastoral theologians allegedly claim that relationality illumines women's distinctive tendency toward mutual dependency as part of their development and maturation. On the one hand, relationality makes women provide care for family. It overburdens them by essentializing their motherly care on the other. Husbands who are unfaithful to their wives tend to abuse power over women in order to keep them loyal to the family regardless of their infidelity. Women's relationality can be manipulated when faithless husbands depend on the cultural bias against women whose presence in the family they regard as essential. Pastoral theologians have closely paid attention to women's sufferings by analyzing power dynamics at the socio-cultural level. By rejecting patriarchal approval of men's infidelity, they try to encourage women to recover the language of the self. For this purpose, pastoral counselors for women must primarily understand women's life in their relational environments. Pastoral theology distinguishes itself from typical tips for a simple solution. The pastoral counselor must empathize the betrayed wives by helping them break the silence and crack down the unconscious homeostatic belief that women are always responsible for their husbands' infidelity.

Key words: relationality, pastoral theology, infidelity, women's voice, misogyny